

第8回 外登法問題 國際SYMPOSIUM

새천년을 함께 살아 갈 ASIA 기독교공동체

新千年をともに生きて行く ASIA 基督教共同體

日時： 2000年 10月 30日(月) - 11月 1日(水)
場所： 溫陽觀光 Hotel (T. 041-540-1012)
主催： 日本 外登法 問題全國基督教連絡協議會
日本 NCC 在日外國人人權委員會
韓國教會在日同胞人權宣敎協議會
韓國NCC 人權委員會

第8回

外登法問題國際SYMPOSIUM

새천년을

함께

살아

갈

아

기

독

교

공

동

第8回 外登法問題 國際SYMPOSIUM

새천년을 함께 살아 갈 ASIA 기독교공동체

新千年をともに生きて行く ASIA 基督教共同體

日時： 2000年 10月 30日(月) - 11月 1日(水)

場所： 溫陽觀光 Hotel (T. 041-540-1012)

主催： 日本 外登法 問題全國基督教連絡協議會

日本 NCC 在日外國人人權委員會

韓國教會在日同胞人權宣敎協議會

韓國NCC 人權委員會

인사말

제 8차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면서

2000년 첫 결실의 계절에 역사 깊은 온양에서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와 한국교회 재일동포 인권선교협의회가 일본기독교협의회 재일의국인인권위원회, 일본외등법문제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와 함께 韓日간의 과거 아픈 역사로 인해 상존하고 있는 비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인 외등법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이 일을 위해 노력해 온 韓日 양국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오랜 분단과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공존과 남북화해, 통일을 향한 여러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15 남북정상회담, 8·15 이산가족의 만남, 9월의 비전향 장기수 송환,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에 이어 10월 20-21일 서울에서 개최된 아셈회의의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선언'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미국무장관의 평양방문과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에 개최되는 제 8차 외등법문제국제심포지움은 지금 한반도에 흐르고 있는 '평화의 흐름'에 한 줄기입니다. 이 흐름은 본 심포지움의 주제인 '새천년 아시아인이 함께 살아갈 공동체'로 이어져 평화와 공존의 새장을 열어 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재일동포의 지문날인 철폐로 시작된 본 심포지움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동북아의 평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확장되어 평등과 평화의 새 세상을 이루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 10. 3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 인권위원회
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총무 김동완
위원장 김재열
회장 이정일

次 例

- 인사말 / 3
- 일정표 / 5
- 일본참가자 명단 / 6
- 한국참가자 명단 / 7
- 예배순서 / 9
- 찬 송 가 / 10
- 환 영 회 / 13
- 주제강연 / 15
- 성서연구 / 27

- 강 연 / 29
 - 재일한국·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20년 투쟁과 앞으로의 운동 (사또 노부유키) / 30
 - 재일동포의 현재와 미래(강영일 총간사) / 31

- 사례보고1 / 33
 - 일본의 역사책임과 교회(스즈기 레고) / 34
 - 교회, 안전지대인가 사각지대인가?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중심으로 바라본 교회의 역할(양미강 목사) / 37

- 사례보고2 / 45
 - 이주노동자 문제와 교회(와타나베 히데토시) / 46
 - 이주노동자 문제와 교회(김성원) / 51
 - 이주노동자 문제(이정호 신부) / 53

- 분단토의 / 59

- 분단토의 보고 및 전체회의 / 61

일 정 표

第8回 外登法問題 國際SYMPOSIUM

시 간	10月30日(月)	10月 31日(火)	11月1日(水)	11月2日(木)
08:00		朝 食	朝 食	朝 食
09:00				
09:50		聖書研究	韓國代表歸家	日本代表 金浦空港
10:00		講演 (1)	日本代表 現場訪問 (忠清南道, 百濟遺蹟地)	
10:30		講演 (2)		
11:30		休 息		
11:45		事例報告 I		
12:30		紀念寫眞撮影 中 食		
14:00		事例報告 II		
15:00		休 息		
15:15		分團討議		
17:00				
18:00	接受, 登録	分團討議 報告 全體會議		
18:30				
19:00	夕 食	夕 食		
19:30		聲名書基礎委員會		
20:00	開會禮拜(韓國)	聲名書採擇		
20:30		閉會禮拜(日本)		
21:00	主題講演			
21:30	歡迎會			

第八回外登法問題國際심포지움日本側參加者 명단

- 鈴木 伶子 SUZUKI REIKO NCCJ議長
 飛田 謙一 HIDA YUUICHI NCCJ在日外国人人權委員會委員/神戸學生센터館長
 吉高 叶 YOSHITAKA KANO 日本浸礼教쿠리가사와教會牧師/NCCJ副議長
 麻生 和子 ASOU KAZUKO 日本基督教婦人婦人矯風會/NCCJ在日外国人人權委員會委員
 木邨 健三 KIMURA KENZO 日本天主教正義平和協議會事務局長
 上原 功宏 UEHARA KATSUHIRO 日本天主教正義平和協議會横浜教區担当司祭/
 미조노구치教會司祭
 藤原 寛人 FUJIWARA HIROTO 日本基督教團在日韓國朝鮮人・日韓連特別委員會/
 上井教會牧師
 姜 栄 一 KANG YONG-IL 在日大韓基督教會總幹事
 鄭 相 熙 CHUNG SANG-HE 在日大韓基督教會關東地方會會長/橫須賀教會牧師
 韓 聖 炫 HANG SUNG-HYUN 在日大韓基督教會關東地方會社會部/西新井教會牧師
 前田 良彦 MAEDA YOSHIHIKO 日本聖公會前宣教主事/淺草聖요한教會牧師
 大木 弘行 OHKI HIROYUKI 日本聖公會東京教團在日프로젝트/目白聖公會牧師
 柴田作次郎 SIBATA SAKUJIRO 北海道外基連/日本基督教團望洋台伝道所牧師
 林 炳 澤 LIM BYUNG-TAEK 北海道外基連/
 日本의戰後責任을 清算하기 위해서 行動하는 北海道會
 秋葉 正二 AKIBA MASAJI 關東外基連/日本基督教團板橋大山教會牧師
 木村 治男 KIMURA HARUO 神奈川外基連/日本基督教會上溝教會伝道教會牧師
 岩本 和則 IWAMOTO KAZUNORI 中部外基連/日本基督教團名古屋中村教會牧師
 後藤 一郎 GOTO ICHIRO 中部外基連/日本聖公會中部教區
 合田 悟 GODA SATORU 外登法問題關西代表者會議/日本自由監理教團議長
 李 清 一 LEE CHONG-IL 關西外基連/在日韓國基督教會館館長
 原田 光雄 HARATA MITSUO 關西外基連/日本聖公會大阪教區司祭
 朴 昌 煥 PARK CHANG-HWAN 關西外基連/在日大韓基督教會關西地方會社會部長/
 豐中第一教會牧師
 朱 文 洪 JU MOON-HONG 九州・山口外基連/在日大韓基督教會小倉教會牧師
 青柳 行信 AOYAGI YUKINOBU 九州・山口外基連/天主教福岡正義平和協議會
 金 成 元 KIM SUNG-WON 韓國人法律救援센터/在日韓國基督教會館幹事
 渡辺 英俊 WATANABE HIDETOSHI 難民・移住労働者問題基督教連絡會/
 日本基督教團ナカ伝道所牧師
 佐藤 信行 SATO NOBUYUKI 在日大韓基督教會在日韓國人問題研究所
 穂鷹 守 HOTAKA MAMORU 外基連事務局長/日本基督教團東京教區東支區社會委員長
 中村光太郎 NAKAMURA KOTARO 外基連事務局/日本浸礼教花小金井教會
 林 貞 礼 LIM JEONG-YE 읍저버
 梶村のぞみ KAJIMURA NOZOMI 읍저버/日本基督教會牧師

■ 韓國側 參加者 名單

- 김재열(金在烈) 神父 NCCCK 人權委員長, 聖公會 教務院長
 이정일(李正一) 牧師 韓國教會 在日同胞人權宣教協議會 會長, 廣場 教會
 이명남(李明南) 牧師 前 NCCCK 人權委員長, 당진 教會
 노영우(盧英愚) 牧師 清州地域 NCC 人權委員, 청주남 教會
 원형은(元亨恩) 牧師 釜山地域 NCC 前 人權委員長, 빛과소금 教會
 단필호(段弼浩) 牧師 大田地域 NCC 人權委員, 榮光 教會
 김정웅(金正熊) 牧師 清州地域 NCC 人權委員長, 명암 教會
 류해근(劉海根) 牧師 外國人勤勞者宣教會
 이인철(李仁喆) 牧師 基督 세진회 總務
 임광빈(任光彬) 牧師 NCCCK 人權委員, 朝鮮族福祉宣教센터 所長, 의주로 教會
 윤길수(尹吉洙) 牧師 安養中央教會
 최의팔(崔依八) 牧師 韓國教會外國人勞動者宣教協議會 會長
 이광일(李光一) 牧師 韓國基督學生總聯盟 總務
 성해용(成海龍) 牧師 韓國基督教社會問題研究院 院長
 김경남(金景南) 牧師 在日同胞人權宣教協議會 事務局長
 허종현(許鐘鉉) 神父 全州地域 NCC 人權委員, 聖公會 希望教會
 임태수(任太秀) 教授 湖西大學教 舊約學
 양미강(梁美康) 牧師 韓國挺身隊問題對策協議會 總務,
 이정호(李貞浩) 神父 韓國外國人勞動者協議會 會長, 聖公會 성생원 教會
 류시경(柳時景) 神父 聖公會 大學教
 문성순(文成淳) 先生 韓國基督青年協議會 總務
 이정자(李正子) 先生 韓國基督青年協議會 幹事, 通譯
 김경미(金景美) 先生 韓國基督教社會研究院 外國人勞動者問題 擔當
 김용환(金龍煥) 牧師 釜山地域 NCC 人權委員 중부 教會
 안하원(安河垣) 牧師 釜山地域 NCC 人權委員 새날 教會
 김영수(金英수) 牧師 釜山地域 NCC 人權委員長
 이철우(李哲佑) 牧師 光州地域 NCC 人權委員, 무등 教會
 김태규(金太奎) 牧師 NCCCK 人權委員, 한빛 教會
 김해성(金海成) 牧師 城南外國人 勞動者의 집 代表

김덕환(金德煥) 先生 留學生
 이정자(李正子) 幹事 韓國基督青年協議會
 김동완(金東完) 牧師 NCKK 총무
 백도웅(白道雄) 牧師 NCKK 부총무
 임흥기(林興起) 牧師 NCKK 人權社會局 局長
 황필규(黃弼奎) 牧師 NCKK 人權社會局 部長
 이충재(李忠宰) 牧師 NCKK 一致局 擔當
 이정석(李正石) 幹事 NCKK 情報通信室

□ 통역

강혜정(姜惠頂) 先生 동시통역사

예배 순서

* 日時 : 2000. 10. 30 / 19:30
 * 場所 : 다이아몬드 홀(3層)

開會禮拜

* 司會 : 李正一 牧師
 韓國教會 在日同胞人權宣教協議會 會長

* 默 禱 一 同
 * 讚 頌 20. 禮拜 讚美 一 同
 * 祈 禱 擔 當 者
 * 聖經奉讀 요한 福音 4 : 9-14 司 會
 * 說 教 상종치 아니함의 벽을 부수자 金在烈 神父
 KNCC 人權委員會 委員長
 * 讚 頌 521. 信 仰 一 同
 * 歡迎人事 金東完 牧師
 KNCC 總務
 * 祝 辭 李 吉 永
 牙山 市長
 * 祝 禱 李明南 牧師
 KNCC 前 人權委員會 委員長

□ 10月31日 / 20:30

閉會禮拜

* 司會 : 日本
 * 讚 頌 384. 1, 2節 信仰 一 同
 * 祈 禱 擔 當 者
 * 聖經奉讀 요한복음 4: 1-6 擔 當 者
 * 說 教 국경을 넘는 예수 - 21세기, 하나의 세계를 향하여 ... 合田 悟
 (日本自由監理教團 議長)
 * 讚 頌 384. 3節 信仰 一 同
 * 祝 禱 擔 當 者

공지

■ 주제강연 10월 30일(월) 20:30 - 21:30

▮ 강연자 : 안재웅 부총무(CCA)

▮ 사 회 : 윤길수 목사

새천년을 함께 살아갈 아시아기독교공동체

새천년을 함께 살아갈 아시아기독교공동체

안재웅 (CCA 부총무)

우리는 21세기 혹은 새천년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다.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필리페 페르난데스-아메토스(F. Fernandes-Aremesto)의 방대한 저서 "Millennium : A History of Our Thousand Year"를 보게 되면 지난 천년의 역사를 1) 문명 또는 문화사적 차원으로부터, 2) 침략과 전쟁의 내면을 요약 기술하고, 3) 과학과 산업의 발전을 특기한 다음, 4)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역할로 요약하고 있다. 그토록 긴 천년도 역사가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처럼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Felipe는 아울러 이 책의 끝 부분에서 새로 시작되는 천년을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1)

1. 인구의 증가 현상
2. 적대적인 전체주의의 재등장 현상
3. 거대한 국가들의 분열화 현상
4. 대도시의 축소화 현상
5. 힘의 축이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현상

이와 같은 예견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다. 새로운 세기는 분명히 과학 및 정보화시대, 의식의 시대, 또는 영성의 시대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과학, 정보화의 시대는 컴퓨터의 발달로 말미암아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체계의 변화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등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또한 사실이라 하겠다. New Age Movement와 같은 새로운 운동의 등장은 우리의 인식 세계를 계속하여 넓혀 주고 있다.

□ 오늘의 현실

워싱턴 DC에 자리잡고 있는 The Worldwatch Institute가 발간한 "State of the World 2000"에 수록된 레스터 브라운(Lester R. Brown)의 논문은 새로운 세기의 도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2)

1. 새천년은 약 2천 3백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이 에이즈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지역에는 약 8억의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데, 이곳의 성인 중 20%가 HIV에 감염된 상태라고 한다. 2천 3백만명의 아프리카인은 이미 에이즈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살펴 보면,

- 짐바브웨의 경우, 65세였던 평균 수명이 1998년에는 44세로 줄었고 2010년에는 39세로 짧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케냐는 66세였던 평균수명이 2010년에는 44세로,
- 나미비아는 65세의 평균 수명이 2010년에는 39세로,
- 남아프리카는 평균 수명이 65세에서 2010년에는 38세로 단축될 것으로 각각 예견하고 있다.

사하라 지방의 모든 병원들의 경우 병동의 70%를 에이즈 환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의 정부는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치료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짐바브웨의 경우 25%의 국민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겨우 미화 100만 달러를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로 쓰고 있는 반면, 콩고와의 대결에는 한 달에 미화 7천만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남아프리카에 있는 Durban-Westville 대학교는 농촌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인데 25%의 학생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에이즈는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고 인구의 감소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새천년은 인구의 폭발과 더불어 시작하게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물론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부의 축적이 커지겠지만 빈부의 격차는 날로 심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성장을 보게 되면, 1950년에는 25억이었던 것이 2000년의 시작과 함께 61억으로 증가했다. 불과 반 세기만에 36억이 증가한 셈이다. 인구 증가는 비록 둔화되었다고는 하지만 2050년에는 89억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지금보다 무려 28억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3. 새천년의 시작은 대기 오염현상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기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200년 전만 하더라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280 ppm이었던 것이 1959년에는 316ppm으로 늘어났고, 1998년에는 367ppm이 되었다. 지난 30년 동

안의 기후 변화를 보게 되면, 1969-71년에는 평균 기온이 섭씨 13.99도였는데 1996-98년에는 섭씨 14.43도로 0.44도가 높아졌다. 이와 같은 추세로 가게 된다면 앞으로 100년 사이에 섭씨 1-4도의 온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남극은 물론, 알래스카, 그린랜드, 알프스 산맥, 안데스 산맥 그리고 칭하이-티베트 고원의 기온도 점점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바다의 수위는 2100년경에는 적어도 17센티미터 내지 1미터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1999년 미국과 영국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기후의 변화 현상에 의하면, 1977년에 이르는 지난 반세기 동안 남극의 빙산이 녹으면서 7천 평방 미터의 크고 작은 땅이 침수되었다고 한다. 그 중 어느 한 해에는 무려 3천 평방 미터나 침수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빙산의 해빙은 결국 섭씨 2.5도의 기온의 상승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4. 새천년에는 물의 양이 점점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하수 등 각종의 방법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지만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Global Water Policy Project에 의하면 중국, 인도, 북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미국은 각종 펌프질로 연간 1억 6천만 톤의 물을 뽑아 올리고 있다. 그런데 농업용으로 1천 톤의 물을 썼을 경우, 수확 가능한 양곡은 겨우 1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을 쓰고 있는 나라는 인도와 중국이다. 인도는 195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의 증가율이 세 배나 되었기 때문에 물의 사용량 또한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의 발표에 의하면 인도는 물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식량 생산도가 1/4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1천 8백만의 인구가 식량난으로 인한 영양실조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매년 6백만의 인구가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1980년부터 실시한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물의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전체 식량의 40%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북부 지방의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중국이 국제시장으로부터 모자라는 식량을 수입할 경우 전세계 양곡 시장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 새천년에는 해양의 어류가 대체 식량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1950년에는 1천 9백만 톤의 어류를 포획했던 것이 1997년에는 무려 그 다섯배에 달하는 9천만 톤의 어류가 포획되었다.

6. 새천년에는 대체 에너지에 의존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는 현재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 얻어내는 화력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에는 태양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선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수력이라든가 풍력, 또는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이 적극 권장될 것이다. 덴마크는 8%의 에너지를 풍력에서 얻고 있으며, 북부 독일은 11%를 그리고 스페인은 20%를 풍력으로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아이오와, 오레곤, 와이오밍 그리고 텍사스 주에서는 풍력을 이용한 농사가 이미 널리 행해지고 있다.

오늘의 에너지 이용현상은 풍력이 22%, 태양열이 16%로 늘어나고 있지만, 새천년에는 태양열의 애용이 절대적일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98년에 7천여개의 태양열을 이용한 지붕을 설치하였고, 독일은 1998년 10만개를 마련하였으며 이탈리아도 1만개의 태양열 지붕을 건축하고 있다.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는 자동차는 물론 기타 여러 분야의 에너지에 대체됨으로써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천년에 우리가 대처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인구증가 문제
2. 기온의 상승 현상
3. 물의 감소 현상
4. 농경지의 감소 현상
5. 해양 자원의 감소 현상
6. 자연림의 감소 현상
7. 각종 동식물의 멸종 현상 등

□ 아시아의 현실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절반 가량이 살고 있는 거대한 대륙이다. 아시아는 세계 문명과 세계 종교의 발상지이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왕정체제와 군부독재 그리고 신생국가 등이 뒤섞여 자리잡고 있는 복잡한 대륙이다. 한동안 미래 학자들은 아시아-태평양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말의 내용에는 중국이 세계적 지도력을 행사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기도 하다.

아시아는 중국문명권과 인도문명권 그리고 말레이문명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아시아는 좋은 삶든 간에 종교와 이념 등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이념과 종교는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아시아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지

만 때로는 정 반대의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종교와 이념에 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아시아인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종과 종교간의 갈등, 언어로 인한 차별, 카스트 제도 등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녀야 할 인권이 깃뻛히고 있다.

아시아는 다른 대륙에 비해서 경제성장률이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 따라서 구매력 또한 엄청나므로 선진국 등은 ASEM이나 APEC과 같은 이름으로 아시아쪽으로 판촉을 늘리고 있다. 특히 서구 세계는 중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성격을 지닌 민족주의적 혁명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동유럽의 사회주의 노선은 퇴조하였지만 중국은 도리어 사회주의에 자본주의를 가미한 독특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다. 구소련연방은 분할의 과정을 밟은 반면에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를 귀속시킴으로써 강력한 국가 지도력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은 권력과 통제력 그리고 공산당의 영향력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정치력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개방정책은 엘리트층 서방 국가에 유학시켜서 새로운 지식과 과학 기술을 배우도록 배려하였다. 귀국한 유학생들은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의 공헌이 중국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 사람들은 관씨(Guanxi) 즉 관계를 중시하는데, 모든 문제를 이 관씨로 풀고 있다. 화교 재벌가들의 투자 유치도 관씨로,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도 관씨로, 권력과의 협상도 관씨로 결판을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관씨는 결국 홍콩-심천-광주-주하이-마카오-필리버 델타를 잇는 메가 지역으로 묶고 있다. 이 지역의 인구만 해도 6천만이 되고 이들은 관씨를 통해서 화교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그밖에 싱가포르, 방콕, 페낭,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 마닐라, 캘리포니아, 뉴욕, 캐나다 그리고 호주의 화교들도 전세계적 투자를 하고 있는데 화교들은 이 관씨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외국 투자가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가공품을 국제 시장으로 수출할 때도 화교들이 중개 역할을 맡기 때문에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고 확실한 시장을 점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상품의 수출은 덩핑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되어 박리다매의 전형적인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중국이 안고 있는 불안 요소 또한 한두가지가 아니다. 티베트의 저항운동, 이슬람교도들의 반발, 신장과 내몽고지역 사람들의 반발, 화룬공 신도들의 단결 등 인종과 종교의 불안 요소가 내재해 있다. 하지만 중국 인구의 94%를 한 민족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구소련연방의 전철은 밟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제 상당 수준의 계층이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세계화에 걸 맞는 시민 노릇을 하고 있다. 중국은 1997년에 인터넷 사용자가 90만명 정도였던 것이 1999년에는 4백만 명이 넘었고 계속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뱅갈로르를 중심으로 하이텍 벨리를 형성해서 컴퓨터 지식산업에 열중하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이들 인도 출신의 컴퓨터 전문가들의 두뇌 이동을 장려하고 있다. 아시아 나라들 가운데 일본과 한국, 대만과 말레이시아 등지에서는 컴퓨터 산업 내지 칩을 생산하는 기반을 다져 놓고 있다. 이에 반하여 아시아의 정치적 상황은 불안한 형편이다.

필리핀의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뇌물사건과 부패정치로 야당에 의해서 지난 10월 18일 탄핵안이 접수된 상태이고, 인도네시아의 와히드 대통령은 수구세력의 모함과 군부가 서서히 등을 돌리면서 고립되어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얀마와 파키스탄은 여전히 군부독재가 판을 치고 있으며 동티모르는 신생국가로서 유엔의 감시하에 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시아는 여성 정치 지도자가 비교적 많은 대륙이기도 하다.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필리핀은 이미 국가 수반을 배출한 바 있고, 현재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은 여성 부통령이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 여성들은 강력한 가부장제도로 인하여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심한 성차별을 받고 있다.

아시아의 종교는 국가 권력과 밀착되어 있어서 종교로서의 기능이 점차 퇴색해지고 있다. 특히 기독교는 소수종교로서 역할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근래에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교도와 기독교인과의 끔찍스런 살육만행은 온 세계 사람들을 처절하게 만들고 있다.

아시아 사람들은 대체로 고난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업과 질병 그리고 가난으로 말미암아 실의와 좌절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우리 모두 그들과 연대하여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기독교 공동체의 역할

기독교는 본래 신앙의 공동체로 출발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 신앙 공동체의 원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콧칸 공동체의 경우는 핍박을 이겨내기 위하여 뭉쳤던 기독교 공동체의 한 예라 하겠다.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알렉산더 대왕의 배려로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제재는 상호 갈등의 요소로 지속되어 왔다. 기독교 공동체는 나름대로 보편적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경

주해 왔다. 그 좋은 예로, 일제하에서 한국의 기독교 공동체는 독립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군사 독재하에서는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앞장섰으며, 분단 상황하에서는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는 다른 아시아국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비록 기독교가 소수 종교이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제 몫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우리는 공동체에 관해서 몇 가지 전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Tönnis(1963년)는 공동체의 개념을 Gemeinschaft 와 Gesellschaft로 나누었는데 국가나 사회 같은 것으로부터 구분짓는 개념이 바로 Gemeinschaft이다. 그러나 외교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국제 공동체나 국가간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유럽 공동체는 우리들이 흔히 쓰는 공동체 개념과는 다르다고 하겠다.

오늘의 세계는 광범위한 뜻으로 세계 공동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시민사회운동과 같은 것들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연대하는 경우가 바로 세계 공동체의 한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이들은 같은 정체성으로 묶여서 공동 관심사를 추구하고 실현하면서 세계 공동체의 진전을 이루어내고 있다. ASEM이나 APEC 또는 WTO와 같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시민사회운동의 대표들이 모여 세계 공동체를 표방하면서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권익을 위해 대항하는 것들이 그 좋은 전형이라 할 수 있겠다.

기독교 공동체는 이미 오이쿠메네 정신에 따라 이를 실천해 왔기에 개념 자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스 쾅(Hans Küng)은 "Global Responsibility"에서 평화를 위한 에큐메니칼 신학을 역설하면서 다른 종교와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3)그는,

- 모든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세계적 윤리가 없이는 인간의 삶을 하나로 묶을 수 없고,

- 모든 종교 간의 평화가 없이는 모든 나라에 평화가 있을 수 없으며,
- 모든 종교간의 대화가 없이는 모든 종교의 평화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편적인 윤리가 세계적으로 자연스럽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고의 전환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시아는 비교적 에큐메니칼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륙이다. 종교간의 대화는 물론이고 공동의 선이나 정의 구현을 위해서 함께 투쟁을 지속해 오고 있다. 나라에 따라 기독교 공동체가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종교가 앞장설 때는 함께 연대하면서 참여하고 있다. 자선이나 구호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옥스팜(Oxfam)이나 월드비전(World Vision) 등은 세계 공동체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그밖에

도 인권의 신장을 위해 또는 박해와 고문을 막기 위해 일하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아시아인의 인권을 위해서 크게 활약하는 아시아인권위원회(Asia Human Rights Commission)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기독교 공동체는 이와 같이 세계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일하는 한편 스스로의 조직을 극대화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전심전력하고 있다.

공동체의 일반적인 개념은 같은 지역에 속하는 마을이나 도시 근교에 사는 주민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연대하는 행태를 말한다. 1972년, 당시 영국의 야당이었던 노동당은 도시 외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의 지역 관심사를 내세워 그들을 뭉치게 하였는데 이것이 공동체의 한 표본이 되고 있다. 이런 뜻에서 본다면 우리 주변에서 활약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은 그 성격에 따라 00 공동체로 불리워질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났던 바닷기독교공동체(Basic Christian Community)와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 바닷공동체의 경험을 토대로 신학적인 공동 관심사를 정리한 것이 바로 "해방신학"이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의 "민중신학"이나 인도의 "달릿신학", 대만의 "향토신학" 같은 것이 그 범주에 속한다 할 수 있겠다.

오늘 열리고 있는 제 8차 외동법 문제 국제 심포지엄도 양국이 연대하여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경주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좋은 본보기라 하겠다.

기독교 공동체는 시민사회운동의 일원이기도 하다. 지난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때 보여준 낙선운동은 공동체의 기능을 극대화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시민사회운동의 결실이었다. 이처럼 기독교 공동체는 시민사회운동과 함께 더 효과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술선해서 위험하고 모험적인 일을 해내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한다.

다이아나 에크(Diana Eck)는 "이웃(Neighbours)"에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미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웃에 관해서 알기를 원한다. 마찬가지로 이웃도 우리를 알기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는 말로 타종교와의 대화 또는 이웃과의 공동체 형성에 기본이 되는 원리를 얘기했다.

우리의 이웃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신음하며 떨시 당할 때, 기독교 공동체는 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아시아의 이웃들은 정치와 사회적 제도로 말미암아 차별 당하고 종교와 문화적인 관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웃들을 외면한 채 기독교 공동체는 저회들끼리만 뚫뚫 뭉쳐 노아의 방주에라도 오른 듯이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하루 속히 뉘우쳐야 하겠다. 그래서 웨슬리 아리아자(Wesley Ariarajah)는

“Not Without My Neighbour”(1999년)라는 책을 통해서 타 종교인을 포함한 모든 이웃이 바로 내 이웃이라고 단호하게 결론짓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공동체는 모든 아시아의 이웃들이 당면하고 있는 일들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서 연대하고 그 실천에 힘써야 하겠다.

우리가 풀어야 할 당면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 | |
|----------------------|-------------------|
| 1. 인구 증가와 식량난 문제 | 2. 가난과 빈부 격차의 문제 |
| 3. 취업과 실업의 문제 | 4. 질병과 보건의 문제 |
| 5. 문맹과 교육의 문제 | 6. 인권과 개인 안보의 문제 |
| 7. 소수 약자와 인종 차별의 문제 | 8. 성차별 및 신분제도의 문제 |
| 9. 환경과 오염의 문제 | 10. 전쟁과 평화의 문제 |
| 11. 사회정의와 평등의 문제 | 12. 윤리와 유전자 조작문제 |
| 13. 개발과 삶의 질의 문제 | 14. 과학과 인류의 미래문제 |
| 15. 종교와 궁극적 삶의 문제 등. | |

우리는 세계화의 물결에 밀려 타의에 의해서 주어진 삶을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우리는 강대국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갇혀 그들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먹어야 하고 살아야 한다. 지금 온 세계인은 이런 패턴을 좇아 살고 있다. 기독교 공동체는 이런 틀 속에서나마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해방의 공동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억압하는 사고, 이념제도, 관행의 틀을 해제하고 해방을 맛보게 하는 일을 우선 순위로 올려놓아야 한다.

□ 이런 생각

나는 지난 10월 16일, 홍콩 이공대학교가 주최한 노벨상 수상자 초청강연회에 참석한 바 있다. 그날의 연사였던 1993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시카고대학교의 로버트 휘겔(Robert Fogel) 교수는 “노동과 여가”를 새로운 세기의 중요한 과제로 지적했다. 노동의 신성함과 여가를 통한 삶의 풍요는 누구나 아는 평범한 진리이다. 노동의 권리나 여가의 선용은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할 필요충분 조건이다. 우리는 과연 이 두 요소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

로버트 스티븐슨(Robert Stevenson)은 “희망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나으며, 가장 위대한 성공은 일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비록 새로운 세기 또는 새 천년이 시작된 터이지만 구태여 1855년에 씌어진 월트 휘트만(Walt Whitman)의 “풀잎”을 인용하는 것은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생은 당신이 배우는 대로 형성되는 학교이다.

당신의 현재 생활은 책 속의 한 장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은 지나간 장들을 썼고, 뒤의 장들을 써 나갈 것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저자이다.
사람이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왜 국경에서 멈추는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당신의 사상을 하늘 위에
불로 새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사고하라.
진실로 그렇게 하라.

온 세상이 단 하나의 귀만으로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듯이
그렇게 말하라. 진실로 그렇게 하라.

당신의 모든 행위가 당신의 머리 위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행동하라.
진실로 그렇게 하라.

당신의 신이 존재를 확인받기 위해 당신을 필요로 하듯이 살아라.
진실로 그렇게 하라.

땅과 태양과 동물들을 사랑하라. 부를 경멸하라.
원하는 모든 이에게 자선을 베풀라.
어리석고 제정신이 아닌 일에 맞서라.
당신의 수입과 노동을 다른 사람을 위한 일에 돌려라.
신에 대하여 논쟁하지 말라.
사람들에게는 참고 너그럽게 대하라.
당신이 모르는 것. 알 수 없는 것 또는
사람 수가 많은 적든 그들에게 머리를 숙여라.

지식은 갖추지 못했으나 당신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젊은이들, 가족의 어머니들과 함께 가라,
자유롭게 살면서 당신 생애의 모든 해, 모든 계절,
산과 들에 있는 이 나뭇잎들을 음미하라.
학교, 교회, 책에서 들은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하라,
당신의 영혼을 모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하라.

참고도서

1. Felipe Fernandes-Armesto, **Millennium :A History of Our Last Thousand Years**
(London : Bantam Press, 1995) pp.695-710
2. Lester R. Brown and Hilary French, ed., **State of the World 2000**(New York :
Worldwatch Institute, 2000) p. 3
3. Hans Kung, **Global Responsibility : In Search of a New World Ethic**(London :
SMC Press, 1991) p. 138

성서연구

10월 31일(화) 09:00 - 09:50

강연자 : 임태수 교수(호서대학교)

사 회 : 원형은 목사(빛과 소금교회)

공지

강 연

10월 30일(화) 10:00 - 11:30

【사 회 : 일 본

【발 표 :

강연(1) 재일한국·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20년의 투쟁과 앞으로의 운동
사또 노부유키(재일대한기독교회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

강연(2) 재일동포의 현재와 미래
강영일 목사(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

재일한국·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20년의 투쟁과 앞으로의 운동

사또 노부유끼

재일대한기독교회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

1. [전후일본] 속의 재일 한국·조선인

2. 지문날인 거부와 인권획득 투쟁

1) 제1기 1980 - 84

2) 제2기 1985 - 87년

3) 제3기 1988 - 1999년

3. 지문날인 거부운동의 영향

4. 21세기의 우리들의 과제

재일동포의 현재와 미래

강영일

재일대한기독교회총간사

1. 재일동포의 현황

(1) 다양화(용광로 → 셀러드볼)

--- 용광로(Angle-Saxon · 대화민족(大和民族) → 셀러드볼 = 다민족 ---

① 재일의 구성의 다양화(재일, 체일(滯日), 더블, 귀화)

② 지역의 다양화(도시, 지역분산)

③ 용어의 다양화(한국어, 일본어)

④ 정체성의 다양화

(2) 재일의 일치의 확립

① 법적지위, 참정권

② 사명(mission)의 확립(Peter F. Drucker)

소자화(少子化) → 이민제도(2030년대)

2. Mission의 담당자로서의 재일(在日)

(1) 기류민

(2) 남는(殘)자

3. 제일동포의 미래

--- 70 ~ 80년대에서의 배움·경험했던 것

--- 평화통일과

(1) 인재양성

(2) 지역센터(민족단체의 거점과 중심에서)

(3) Minority 센터(아시아센터로서)

사례보고1 10월 31일(화) 11:45 - 12:30

■ 사 회 : 노영우 목사(청주NCC 인권위원)

■ 祈 禱 : 前用 良彦(Maeda Yoshihiko)

■ 발 표 : 각 20분

1) 일본의 역사책임과 교회

鈴木 裕子(스즈키 레고, 일본기독교협의회 의장)

2) 교회, 안전지대인가 사각지대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바라본 교회의 역할

양미강 목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

일본의 역사책임과 교회

鈴木伶子(스즈끼 레코)

일본기독교협의회 의장

기독교인으로서의 역사적 책임을 생각할 때 윤명선이라는 친구와의 만남을 먼저 얘기해야 할 것 같다.

약 10년 전 나는 '한일역사기행'을 계획하고 일본 YWCA의 젊은 회원과 같이 한국을 방문했다. 독립기념관에 가는 날 한국YWCA가 준비한 차를 타고 그쪽에서 질문하는데로 내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었다. 내가 태어났던 1938년 9월 10일은 일본경찰의 갖가지 감시아래서 조선기독교장로회가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결의한 날이었다. 일본에서 어떤 목사가 장녀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순간에 한국에서는 많은 목사가 죽을 정도로 심한 고생을 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기독교인은 투옥 당하고 고문을 당했다. 이것을 알고 나서 나는 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조금이라도 일하고 싶다고 생각해 왔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때까지 말없이 운전했던 여성이 용서하겠다고 말했고 자기는 주기철 목사의 손녀라고 말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했다.

조선총독부의 황민화 정책에 대해 가장 강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 총독부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황민화를 진행시키면서 기독교의 탄압을 시작했다. 이 때 투옥 당하고 옥사했던 기독교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다. 주기철 목사님의 손녀인 윤명선씨는 일본에 대한 극한 분노와 증오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친구의 안내로 오사카 관광을 하고 있었다. 나중에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녀가 친구의 말대로 신사로 들어가 패전 앞에 있는 줄을 만졌더니 갑자기 "당신이 먼저 용서를 하라"라는 음성을 들었고 눈물이 끝없이 흘렀다. 한국에 돌아 온 윤명선씨는 하나님께 "저 목소리가 당신 목소리라면 징표를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다. 며칠 후 한국 YWCA에서 일본손님들을 독립기념관에 안내해 달라는 의뢰가 있어 일본YWCA의 손님을 태우고 가게 된 것이며 그 여행 중에 신사참배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표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다음 휴게소에서 차를 세운 그녀는 "이것으로 나도 일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동시에 일본 교회가 깊어져야 할 역사적 책임을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수그리스도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이며 제2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셨다.

일본교회는 전에 한국을 식민지로 했을 때 그 두 개의 계명을 어겼다. 스스로는 "천황은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기피했지만 조선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을 때 "신사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궤변을 써서 참배를 장려하며 참배를 거부하는 조선기독교신도를 죽였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신으로 하는 계명을 어긴 일본기독교회는 동시에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제2의 계명도 어겼다. 한반도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이웃을 죽이고 땅이나 이름이나 재산을 빼앗고 젊은 여성을 강제적으로 성노예화 했다.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에 이주하거나 징용 당해서 일본에 연행되고 중노동에 종사해야만 했던 한국인들도 많다.

원래 교회는 복음의 진리에 서서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에는 올바른 발언을 해야 하는데 교회 스스로가 국가에 영합한 결과 '하나님을 신으로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 계명을 어긴 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패전 후 일본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기 위해서는 전에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했던 죄와 이웃을 죽이고 이웃의 것을 빼앗고 여성을 강간했던 죄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일하는 것이 필수였다.

아쉽게도 패전 후의 일본 교회는 일본사회와 똑같이 피해자 의식에 시달리며 자기가 저질렀던 죄의 크기를 확인하는 것도 그 죄를 고백하는 것도 무지 늦었다. 1976년 일본기독교단이 냈던 전쟁 책임 고백이래 드디어 많은 교단이 전쟁 책임을 인정하는 성명을 낼 수 있을 때까지 되었다. 아쉬운 것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일치를 보지 못해 전쟁 책임 고백에 대해서도 균열이 생기며, 아직 전 교회가 전쟁 책임의 죄를 고백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교회의 늦은 걸음과 달리 80년대 말부터 '위안부'문제를 알게 된 일반시민, 특히 여성들이 일본이 저질렀던 죄의 크기를 알게 되면서 식민지배나 침략전쟁에 대한 가해 책임을 느끼며 일하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일반시민 운동이지만 그 그룹 중심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 또 전쟁 중에 부당한 취급을 받던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지원자 중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현재 '위안부'문제는 12월에 여성국제전범법정을 할 예정이며, 그 준비가 진행 중이다. 지난 9월30일에는 NCC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국제전범법정을 향한 기독교인전국집회를 개최했는데 신앙인의 시점으로 그 활동을 확인하며, 더불어 기도하고 12월을 향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이 저질렀던 죄를 인정하려하지 않고 견고한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님께 기대는 기독교인의 신앙이 운동 속에서 희망을 주고 있다. 비기독교인이며 시민활동을 하는 사람이 '현실만을 보고 있었으면 운동을 계속 못했을 것이다. 역사 속에서 우리들을 묶는 큰 힘이 있어 정의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운동을 계속해올 수 있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교회의 벽을 넘어서 일하시는 것을 실감했다.

작년 신가이드라인 법제화 반대운동에서는 NCC등 종교자들이 노동조합을 포함한 각 방면(단체)에게 말을 해서 결집할 수 있었다. 그 실적 때문에 일반 시민운동이 NCC에 협력을 구해오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전쟁책임 고백의 실질화를 바라며 일을 해왔던 일본 기독교인은 지금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신가이드라인 법제화에서 전쟁에의 군사적 체제가 정리되어오면서 수상이나 도지사 등 정치책임자의 국수주의적인 발언이 많이 나오고 남경학살의 사실도 부정하는 말도 나오고 내년도부터 쓰이는 역사 교과서 중에는 '위안부'의 기사가 사라지는 것도 있다.

군사화의 점에서도 천황제, 민족주의의 점에서도 60년 이전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놓였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다. 죄책 고백을 참된 고백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반세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하고 이웃을 죽이고 탈취하는 죄를 다시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결의를 굳게 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인 일본의 움직임에 반하여 국제사회의 흐름은 화해와 공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통일을 향한 걸음이 시작되었다. 분단이라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후유증 중의 하나가 해결이 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 북일 국교교섭도 시작되려한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북일 국교교섭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전의 식민지 지배의 죄를 인정하고 제대로 보상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또한 북일 국교회복이 단지 북일 간의 역사의 청산이라는 것에 머물지 않고 '미완'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는 한 일간의 과거의 청산문제를 해결하는 '제2의 기회'가 되도록 바라며 일하고 있다.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것을 기억하며 그 중의 '현재'임을 자각하고 이웃나라의 사람들의 얼굴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가는 길을 올바르게 인도해주는 등대가 된다.

사례보고1

교회, 안전지대인가 사각지대인가?: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바라본 교회의 역할 -

양미강 목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

1. 동북아시아에 평화의 시대는 오는가?

최근 한국과 일본의 신문 지면을 장식한 기사가 있다. 바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개악 사건이다. 1982년 한차례 교과서 파동을 겪고 난 후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제대로 쓰여지는가 했더니, 우익인사의 집결지라고도 할 수 있는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회'(이하 만드는 회)에서 본격적으로 일제의 전쟁침략을 미화하고, '위안부' 문제 등 일제 피해사실을 축소, 삭제하는 교과서가 내년 7월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개악움직임을 단지 교과서의 문제로 파악하기 어렵다. 1999년 8월 일본국회는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채택하였고, 신가이드라인 문제와 자위대의 출동을 입법화하는 등 계속되는 일본의 변화는 이미 교과서 개악을 예고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하드웨어라면 교과서 개악은 소프트웨어인 셈이다. 일본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가?

2. 평화운동의 한축, 정대협운동

1) 한국운동의 국제화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운동은 한국의 시민운동에 있어서 획기적인 획을 그었다. 역사의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끌어냈으며, 이 운동을 피해자의 인권회복 차원뿐 아니라 세계여성인권운동으로, 또 그 지평을 평화운동으로까지 확대시켜왔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분명 국제법적으로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그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정대협은 유엔과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에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 결과 국제기구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명백한 전쟁범죄이며,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

정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를 계속 제출하고 있다. 1992년 정대협은 이 문제를 유엔인권 위원회에 가져간 이래, 1994년 국제법률가협회(ICJ) 보고서, 1995 베이징여성대회 행동강령, 1996 유엔인권위원회 쿠마라스와미 권고안 채택, 1997년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채택, 1998년 유엔인권소위원회 게이 맥두걸 보고서 채택, 1999년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같은 국제기구들의 권고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전후처리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괄적으로 타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문제는 한일협정 당시 거론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문제가 있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또 피해자와 관련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만들어진 일본의 국민기금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받지 않고 있다.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만이 아니라 대만이나 필리핀의 일부 역시 국민기금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법적 배상을 고수하고 있다.

2) 일본군 '위안부'문제해결운동의 현재지점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여성인권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의 근거를 배상과 책임자처벌로 집중하면서 10년간 운동을 전개해왔다. 배상과 처벌이라는 두 가지 해법은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주요한 초석이 되고 있다. 특히 위안부 문제해결운동에 있어 운동방식은 미군에 의한 노근리 사건, 베트남전의 한국군 양민학살 등 다른 비슷한 현안을 풀어가는데 있어 모델이 되고 있다.

① 배상운동

정대협이 1990년 창립된 이래, 줄기차게 일본정부를 상대로 진행해온 운동이 배상운동이다. 배상운동은 일본정부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배상은 정대협 등 관련단체가 요구하는 사죄와 한쌍을 이룬다. 사죄없는 배상은 공허한 메아리이고, 배상없는 사죄는 말잔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본정부의 수상의 계속된 사죄, 혹은 사과 담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해온 것은 배상 없는 사과가 얼마나 허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었다.

가) 일본내의 배상운동

배상의 구체적인 방법은 일본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다. 1992년 최초의 증언자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 동경재판부에 소송을 제기한 이래 현재까지 일본에서 진행중인 재판은 총 56건에 이른다. 이중 위안부 관련 재판은 현재 한국과 필리핀, 중국을 비롯하여 8건이 있으며, 한국관계의 전쟁 전후보상 재판은 18건에 이른다. 그간 소송은 번번히 기각되었는데, 그 이유는 배상을 위한 법이 일본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1998년 4월 일본국내법 상으로 일본사법부상 최초로 일본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왔다. 바로 시모노세끼 판결이 그것이다. 1992년 한국인 '위안부' 3명과 근로정신대 7명이 집단으로 일본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모노세끼 재판부는 적어도 1993년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 즉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위안부 제도에 관여했다는 시인은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시인하고 입법을 했어야 했다고 판결했다. 일본 국회가 입법을 게을리 한 입법 부작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액 30만엔을 당사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물론 이 판결은 근로정신대에 대해서 기각했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승소판결이다.

그러나 일본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한번도 승소한 적이 없는 전례를 비추어볼 때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들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일본 국내법상 처음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일본사회에 불러온 반향이 컸다. 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일본정부는 고등법원에 제소해 현재 히로시마 고등재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해 10월 1일 만 6년을 끌어온 재일동포 피해자 송신도 할머니 재판이 단 30초만에 기각 처리되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송신도 할머니 변호인단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재판단 역시 할머니의 피해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결과는 재판단은 일본정부가 전쟁 전에 일어난 상황에서 대해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인도에 반한 죄'로서의 위안부 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위안부'보상입법안 운동이 진행 중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제시대 강제로 끌려간 징용, 징병 등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이다. 지난 4월 10일 일본 민주당은 모토오카 쇼지 의원의 발의로 '위안부'문제 보상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아울러 아시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변호단들을 중심으로 특별법제정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나) 미국에서의 배상운동

그동안 일본정부로부터 배상을 받는 일은 일본의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만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1999년부터 미국에서 홀로코스트 재판이 독일정부의 화해금 출연으로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징용자들의 소송은 주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위안부'문제도 강제징용의 틀 속에서 일본기업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0.9.18 워싱턴 연방지법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고, 한국만이 아닌 필리핀, 대만, 중국 등 아시아 피해국의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제 배상을 위한 소송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불이 붙게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의 재판은 외국인 불법행위 청구권(Alien Torts Claim)에 근거한 것으로, 나치기업에 대한 책임에 이어 일본기업, 더 나아가서 일본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예정이다.

② 책임자처벌운동

정대협 운동의 강조점은 '사죄와 배상'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왔다. 이와 더불어 책임자 처벌은 제2차 아시아연대회의(1993, 일본)에서 한국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는데, 정대협과 연대활동을 하는 대다수의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냉담한 반응이었다. 배상운동에는 동참하지만, 자국의 국민을 처벌하는 책임자처벌운동까지는 용인하지 못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자처벌운동은 현실적인 가능성을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설립으로 전쟁 중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위안부'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배상과 함께 책임자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 기인했다. 그 결과 1998년 4월 서울에서 열린 5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일본전범을 처벌하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을 2000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여기에 힘을 보탠 것이 1998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 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배상과 더불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것이다. 게이 맥두걸의 권고는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 쿠마라스와미 권고보다 훨씬 강력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한 유엔의 구체적인 개입요구라든지, 일본정부를 향해 최소한 일년에 두 번 진상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책임자처벌운동은 아시아 피해국들의 단체들에 의해 준비되고 있다.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와 운동가, 법률가들을 주축으로 국제법에 근거한 시민법정을 통해 일본정부에게 압력을 가하는 캠페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각국의 진상규명 작업을 기반으로 전범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시민법정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일본군 성노예와 같은 전쟁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0년 법정은 올해 정대협의 핵심사업이다. 정대협은 2000년 법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명예와 정의를 회복시키고, 지금도 무력갈등 하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반복되고 있는 여성인권 유린의 현실을 세계여성들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막아보자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정대협은 국내적으로 전국캠페인을 통해 2000년 법정을 알리고, 그간 진행되어온 진상규명 작업을 통해 피해자의 증언, 가해체계, 피해분포 등 연구작업을 마무리하여 총체적인 기소장을 작성하고 있다. 또 100% 모금으로 진행되는 만큼 국내외의 교회나 단체들의 도움을 통해 2000년 법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3) 정대협운동에 있어서 기독교의 노력

① 일본의 시민단체들과 기독교인들의 노력

정대협은 그동안 국제적인 연대활동 이외에도 일본의 시민단체들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운동을 전개해왔다. 아마도 정대협 운동이 뿌리를 내리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일본 시민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할머니들을 초청한 증언집회, 그림전시회 등 각종의 집회를 통해 삼삼오오 짝을 지어 할머니들을 지원

하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해왔다. 위에서 본 바 같이 송신도 할머니의 재판을 지원하고 위해 재일한국인, 일본인 등 총 1000명의 후원회원들이 있다는 사실은 이들의 노력을 반증하기도 한다. 전후보상을 위한 단체들, 강제연행, 군인군속들의 재판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활동은 점차 보수주의화하는 일본 속에서 매우 귀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5년 해방 5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의 기독교계는 한국의 식민지화에 대한 죄책을 고백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을 보내왔다. 특히 관서지방 크리스찬 죄책고백자회는 수 차례 성금을 전달했다. 또 일본기독교단은 매년 8월 평화주일 헌금을 10년 동안 실시하기로 계획하면서 그 헌금을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과 정대협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일본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나 개인들이 후원도 있다.

최근 정대협은 교육관을 개관하여 국내의 방문자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 방문자들 중 대부분은 일본인들로서 노조, 변호인단, 평화단체, 학생 등 매우 다양하며 이들이 교육관을 통해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비디오, 그리고 최근 정대협 운동의 흐름등을 들으면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 함께 하고 있다.

② 한국 기독교의 노력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기독교의 노력은 주로 교회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사실 정대협이 조직되기 이전, 1988년 교회여성연합회의 '기생관광 국제세미나'에 의해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한국여성운동계의 불을 붙였다. 그 이후 교회여성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이 운동의 기반이 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정대협 회원단체 22개 중 14개 단체가 한국의 기독교여성단체들이다.(감리교 여교역자회, 감리교여선교회, 기장여선교회, 기장여교역자회, 예장여교역자회, 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여성교회,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연구원, 가톨릭여성복지회, 장상수도연합회, 천주교여성공동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기독교민회). 이뿐 아니라 정대협 실행위원이나 실무자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로서, 외형적으로는 일반여성단체이긴 하지만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나라의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운동에 매진하고 국내의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주로 수요시위로 집중되고 있다. 1992년부터 시작한 수요시위가 단일한 이슈로는 최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현재 11월10일로 384차에 이르고 있다. 수요시위를 기점으로 한국에서는 민가협의 목요집회, 주한미군군절본부의 금요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뿐 아니라 필리핀에서도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시위를 2주에 한번씩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도 한달에 한번씩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끈질기게 진행되는 수요시위는 국내운동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된다. 다양한 형식을 통해 때로는 예배형식으로, 때로는 불교형식으로 진행되는 수요시위는 종교를 초월한 연대의 장이 되며, 연령을 초월한 상호교류의 장이 되기도 하며, 국적을 초월하여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모두 다함께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한국기독교 일반의 관심은 1993년 한국목회자정신대대책협의회가 짧은 기간에 활동하면서 수요시위에 참가하였고, 1995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수요시위를 주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격적인 결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 정대협의 국제활동의 주요근간이 되고 있는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인권소위원회 참석을 위해 WCC, WARC가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기도 했다.

정대협 운동은 이미 여성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의 시민단체들과 광범위하게 연대하고 있음을 볼 때(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경실련 등), 교단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3. 평화운동과 여성인권운동의 미래

1) 분명한 역사인식을 가져야

현재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군국주의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앞서 말한대로 기미가요, 히노마루, 신가이드 라인, 독도, 헌법개정운동 등 군국주의화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도 “위안부”제도는 강제연행이 아니었다”는 지도부총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고 일본 교과서에 이 문제를 완화하거나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현재 가시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분명한 역사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김대중 정부는 새로운 한일간의 미래를 운운하면서 과거를 뛰어넘는 미래를 만들어가려고 한다. 우리에게 과거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디딤돌이다. 결코 걸림돌은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아픔을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 기독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인식을 철저히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만큼 역사에 무관심하고 역사교육에 의지가 없는 경우도 드물다. 결국 기독교의 역사인식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운동으로, 한국의 기독교는 철저히 친일의 잔재를 극복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 여성인권과 평화의식을 가져야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세상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인들이 살고 있는 교회 ‘밖’은 인권운동의 참여한 현장인데, 교회 ‘안’은 무풍지대로 남아있다. 인권의식과 평화의식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이다. 특히 교회를 안팎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성폭력 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국지전, 내전으로 인한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성폭력이 이제는 전쟁범죄로 규정되고 있다. 교회는 더 이상 무풍지대로 남아있을 수 없으며, 인권과 평화의 안전지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여성인권의 문제이며, 역사를 바로잡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문제이다. 또한 과거에 한때 일어났던 과거완료형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계속 피해가 지속되는 현재진행형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직도 무력갈등 하에서 동티모르,

보스니아, 르완다 등에서 여성들에 대한 집단적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또 다른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일은 향후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는 선례를 만드는 일이며, 여성인권운동의 지표를 세우는 일이라는 점에서 교회의 역할은 크다.

3) 자라나는 세대를 길러내야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층은 미래세대이다. 교회학교에서 이러한 문제가 신앙의 눈에서 읽혀지고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많은 현장경험과 탐방을 통해 인권과 평화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일간의 불행했던 과거사는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다. 역사교육은 과거를 가르키는 일이 아닌 미래를 가르키는 일이다.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래세대의 인권교육이라는 점에서 현재 정대협 교육관 등 일반단체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보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일, 연계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는 일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사례보고2 10월 31일(화) 14:00 - 13:00

- 사 회 : 飛田 雄一(Hida Yuuichi)
- 기 도 : 류 해근 목사(외국인근로자선교회)
- 발 표 : 『이주노동자문제와 교회』 - 각 15분

- 1) 와타나베 히데토시(難民 移住労働者 基督教連絡會), 日本
 - 2) 金 成元 先生(韓國人法律救援 CENTER), 在日
 - 3) 李 貞浩 神父(外國人労働者問題對策協議會 會長), 韓國
-

이주노동자 문제와 교회

渡邊英俊 (와타나베 히데토시)

(난민·이주노동자문제 기독교연합회)

1. 일본의 이주노동자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 중 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의 각지에서 일보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이다. (별표1 참조)

1980년대 전반까지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수는 약 80만명이며 대부분은 재일한국인, 말하자면 전쟁 전에 일제식민지 지역출신자이고 한번은 억지로 「일본국민」이 된 사람들과 그 자손이었다. 그러나 1999년말 현재 재일외국인 총수는 180만명 이상이고 그 중에서 약 130만 명에 이르는 수가 80년대 이후에 새로 일본에 들어 온 흔히 말하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라고 추정된다. (별표2참조)

2 이주노동자 실정

일본에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가 처해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가 있다. 최근 '까라바오의 회'가 담당한 노동상담에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또 해고한 사건이 있었다. 고용자가 성실하게 대응을 하지 않아 노동기준감독서(노기서)에 고소하고 고용자를 소환해서 사실 확인을 하려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에 통보를 한 후 노기서를 나왔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찰들에게 그곳에 함께 있던 당사자인 노동자가 잡혔다. 왜냐하면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불법체류'라는 죄명 때문이다. 요즘 도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악질적이고 노골적인 사례는 많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비공인노동자의 상황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까라바오의 회'가 1987년에 구원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가해자가 경찰을 부르고 피해자가 잡힌다는 비도덕적 극치의 상황에서 강경한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체류기간 초과인 노동자들은 건강보험에도 가입이 인정되지 않으며 복지정책적용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이 상황은 체류기간의 초과 이외에 이주 외국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정식으로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일제로는 명목과 다르게 고용자에 예속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일본계외국인」들은 거품 경제의 고비였던 1989년 이후 2,3년간에 20만명의 라틴아메리카의 일본계 이민자의 후손들을 무계획적으로 도입한 인종주의 정책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거품경제의 붕괴에 의해 불황과 실업의 비애를 가장 절실하게 받아왔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자 중에는 「일본인의 배우자」라는 제약없이 취로할 수 있는 유일한 거주자격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결혼한 사람들도 적지 않으며, 근래에는 결혼파탄의 피해를 받는 외국인 여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3. 일본정부의 정책

정부·법무성의 외국인 정책은 전후의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차별정책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단일민족」의 환상을 바탕으로 한 배타주의(排外主義)를 기조로 하고 있다.

1989년, 1997년, 1999년 세 번에 걸쳐 입관법(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개정은 벌칙을 강화하고 단속을 심화한다는 의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생각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00년 봄에 나온 「제1차 출입국관리 기본 계획」은 노동인구의 감소와 노동력 부족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연수생—실습생」 제도의 확충으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방침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노동력」은 「노동자」가 제공한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기술연수라는 별도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전용하려는 사기 비슷한 정책이다. 벌써 연수제도의 모순과 연수생에 대한 인권침해의 사실이 수없이 보고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정부는 이주외국인의 증가를 「치안문제」로 생각하며 경찰을 통해서 「외국인 범죄증가」를 선전하고 매스컴이 이 문제를 더욱 가속화하여 일본사회의 「외국인증오」(xenophobia)를 선동하고 있다. 실제로는 일본전체의 형법범의 증가 실태에 비해서 특히 외국인 범죄가 더 눈에 띄게 많지는 않다. (별표3 참조) 그러나 금년의 우익세력의 대두와 같이 이 경향은 더욱 커지며 지난 4월의 이시하라 도쿄 도지사의 차별발언 이래 공공연히 외국인 배척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4. 지원운동과 당사자들의 노력

일본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지원운동은 최초의 지원NGO가 결성된 14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997년에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네트워크」가 결성되며 90 단체가 이것에 가입되어 있다. 1999년에 동경에서 열린 제4회 전국포럼(2년마다 개최)에서는 1천명이 참가했다. 같은 해에 입관법 개정에 관해서는 국회로비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어 여야당을 통해서 의원과의 접촉이 잦아졌다. 또한 외동법 문제에 관심해 왔던 재일외국인의 인권운동과의 연계가 깊어졌으며 다양한 공동행동이 가능했던 것도 큰 전진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당사자인 이주외국인 자신도 벌써 거주 10년을 넘는 사람들이 많아 졌고 자주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 1999년에는 당사자인 5가족과 그 외 2명(계 21명)은 법무대신에게 체류특별허가(재특)를 얻기 위해 일제히 행동하였다. 일본인 측에서는 NGO들도, 변호인단의 노

력도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투쟁으로 보면서 만류하였으나 당사자들은 이것을 강행하기로 결단하였다. 전국적인 지원 하에 지금까지 결혼한 경우밖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재특(在特)이 중학생 자식을 가진 가족까지 그 폭이 넓어졌다. 단혀 있었던 입관의 문이 당사자의 투쟁으로 열린 최초의 사례로서 주목을 받는 것처럼 당사자들에게 힘이 이 정도까지 발전한 사건이었다.

그 외에도 당사자들은 출신지의 경제 재건을 위해서 서로 출자하고 또한 귀국을 준비하거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의 지원운동은 단지 도와주는 쪽과 도움을 받는 쪽이라는 관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협동해 나갈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시대가 되었다.

5. 기독교인의 역할

이주외국인의 인권지원에 대한 기독교인·교회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가톨릭형

130만명의 이주외국인 중 가톨릭 지역 출신자가 40만명 전후로 추정된다. 일본인 가톨릭 전체인구에 거의 맞먹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더 많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사목의 문제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일부지역에서는 교구의 지원으로 「체일(滯日)의 국민과 연대하는 모임」이 설립되어 상담·지원활동을 행하는 것과 더불어 당사자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2)프로테스탄트형

프로테스탄트의 경우는 개개의 기독교인들이 지원시민단체에 참가하여 기독교를 표방하지 않고 하나의 시민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전국의 많은 지원 NGO로 이 유형의 기독교인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 복합형

소수이긴 하지만 교회 회중에 외국인 멤버를 받아들이며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에는 개교회 외에는 서로 연락이 별로 없고 고립되기 쉬우며 운동으로서의 넓이를 넓히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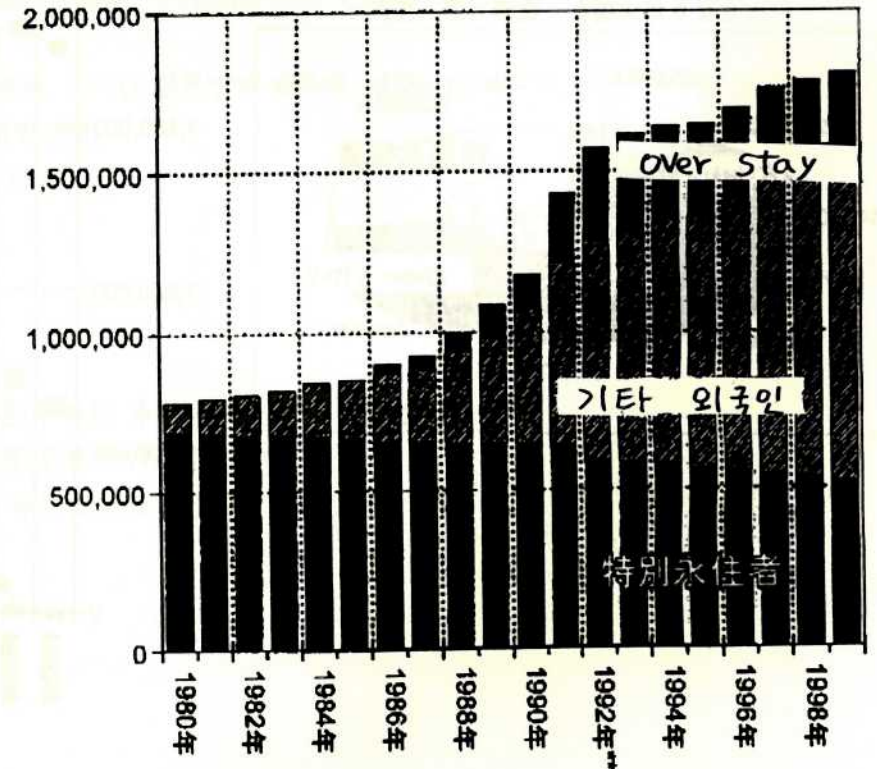
물론, 프로테스탄트형의 가톨릭 신자도 많고 가톨릭형의 프로테스탄트교회도 있다.(일본성공회 동경지구, 카마타 페루인 교회 등) 아무튼 이런 운동들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운동 네트워크에도 연결되어 있고 '난민·이주노동자 문제 기독교연락회'가 운동을 연결해 주는 고리역할을 하고 있다.

별표1

년	특별영주자	그 외의 외국인 등록자	초과체류자	계	외국인등록자
1980년	686,195	96,716		782,910	782,910
1981년	682,181	110,765		792,946	792,946
1982년	678,168	124,309		802,477	802,477
1983년	674,154	142,975		817,129	817,129
1984년	670,141	170,744		840,885	840,885
1985년	662,919	187,694		850,612	850,612
1986년	655,696	211,541	32,000	899,237	867,237
1987년	651,854	232,171	42,000	926,025	884,925
1988년	648,012	292,993	57,000	998,005	941,005
1989년	646,889	337,566	101,000	1,085,455	984,455
1990년	645,438	429,879	106,479	1,181,796	1,075,317
1991년	638,034	580,857	216,399	1,435,290	1,218,891
1992년..	590,193	691,451	292,791	1,574,435	1,281,644
1993년	583,793	736,955	296,751	1,617,499	1,320,748
1994년	578,687	775,324	288,092	1,642,103	1,354,011
1995년	563,050	799,321	284,744	1,647,115	1,362,371
1996년	554,032	861,104	282,986	1,698,122	1,415,136
1997년	543,464	939,243	276,810	1,759,517	1,482,707
1998년	533,396	978,720	271,048	1,783,164	1,512,116
1999년	522,677	1,033,436	251,679	1,807,792	1,556,113

.1992년 이전에 대해서는 특별영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러나 1980~83년, 1985년, 1987년은 추정.
..여기에 있는 특별영주자수의 차이는 입관특예법에 따라 바뀌었기 때문

各年 在留外国人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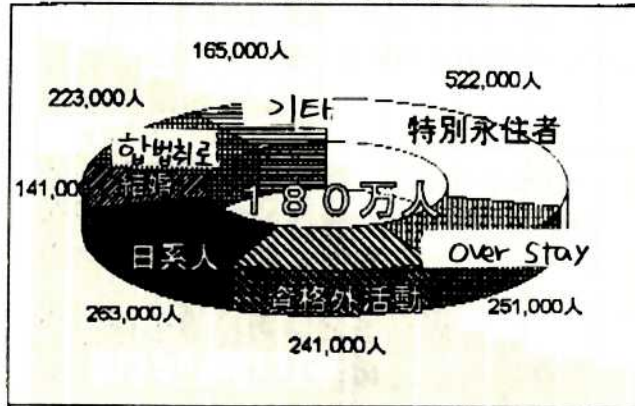


별표2

	1997년 말	1998년 말	1999년 말
구식민지출신자	542,000	532,000	522,000
over stay	277,000	271,000	251,000
자격외 활동	210,000	229,000	241,000
일본계인	260,000	259,000	263,000
결혼	152,000	158,000	142,000
합법취로	215,000	219,000	223,000
기타	103,000	115,000	165,000
합계	1,759,000	1,783,000	1,80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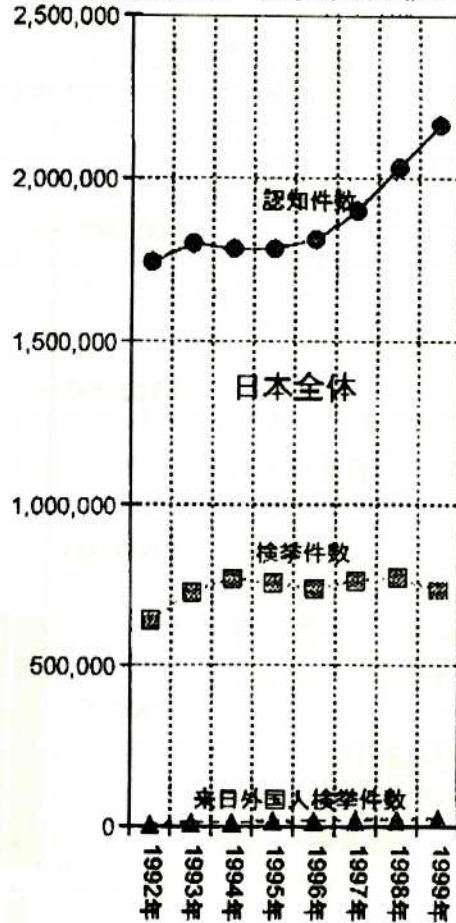
- ①특별영주자=구식민지출신자
(재일한국조선인, 중국인)
- ②비합법재류자
- ③단기체류, 유학·취학, 연수, 가족체류자 등 중의 아시아관계의 대다수
- ④남이관계 「배우자등」, 「영주자」, 「정주자」
- ⑤남이관계를 제외한 「배우자」 등
- ⑥아시아관계의 교육, 기술, 인문지식국체업무, 기업내 전근, 기능, 특정활동, 영주자, 정주자
- ⑦교수, 예술, 종교, 보도, 투자 경영 등, 대다수가 서양계 재류자

1999年末現在 在留外国人推計



別表 3

刑法犯認知件數・檢挙件數比較圖



사례보고2

이주 노동자 문제와 교회

김성원 선생
한국인법률구원(救援)센터
Legal Aid Center for Koreans(LACK)

1. LACK설립 이전의 활동

재일한국기독교교회관(KCC)가 한국에서의 자주(自主)입국자(밀입국자)의 재유(在留)지원 ... 1970년대에서

2. LACK의 설립 ... 1994년 3월

- <조직> 국제인권법학자, 재일동포변호사, 재일한국교회, KCC
- <이유> • 한국의 여권(旅券)자유화 이후, 급증하는 한국인노동자 자주입국자에서 초과 체재(滯在)로
 - 1980년대후반위후, 늘어난 일본인의 배후자, 영주권의 배후자
 - 취학생, 유학생의 증가
- 한국인이라는 명칭의 의미

3. 주요상담내용

- 1) 배후자의 사망, 이혼에 따른 유학자격 문제 및 상속문제
- 2) 재유자격 취득, 변경 문제 / 귀국의 상담
- 3) 노재(勞災, 산재), 교통사고의 보상문제
- 4) 병기(病氣)의 치료

4. 사례소개

- 노재 숨김 • 임금 미지불, 사기
- 입관(入管, 입국관리국)에 있어서의 집단폭행사건 • 배후자 VISA 취소

5. 마지막으로 ... 이주노동자문제와 교회의 역할

<참고 자료>

A. 불법체제자수(국적별)

국 적	92,5/1	93,5/1	93,11/1	94,5/1	94,11/1	95,5/1	95,11/1	96,5/1	97,1/1	97,7/1	98,1/1
총 수	278,892	298,646	296,751	298,800	288,092	296,704	284,744	284,500	282,986	281,157	276,810
한국	35,587	39,455	41,024	43,369	44,916	47,544	49,530	51,580	52,387	52,854	52,123
필리핀	31,974	35,392	36,089	37,544	38,325	38,763	41,122	41,997	42,547	42,827	42,608
중국	25,737	33,312	36,297	39,738	39,552	38,511	38,454	39,140	38,296	38,957	37,590
태국	44,354	55,386	11,659	49,992	46,964	44,794	43,014	41,280	39,513	38,191	37,046
페루	2,783	3,038	25,653	12,915	14,312	15,801	14,698	13,836	12,942	12,037	11,606
말레시아	33,529	30,840	7,677	20,313	17,240	14,511	13,460	11,525	10,390	10,296	10,141
대만	5,729	7,457	23,867	7,871	7,908	7,974	8,210	8,502	9,409	9,403	9,430
이란	40,001	28,437	5,341	20,787	18,009	16,252	14,638	13,241	11,303	10,153	9,186
미얀마	4,704	6,019	6,341	6,391	6,335	6,169	6,022	5,885	5,900	5,957	5,829
방글라데시	8,108	8,069	7,981	7,565	7,296	7,084	6,836	6,500	6,197	5,864	5,581
파키스탄	8,001	7,783	7,414	8,921	6,517	6,100	5,865	5,478	5,157	4,766	4,688
기타	32,290	37,511	38,954	40,421	40,721	41,681	42,890	45,536	48,945	50,016	50,982

* 팩스 인쇄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숫자 '5와 6'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B. 유학생 VISA를 갖고 있는 한국인의 수

1992년 ... 13,381인 1997년 ... 12,557인

C. 취학생 VISA를 갖고 있는 한국인의 수

1992년 ... 6,509인 1997년 ... 5,959인

D. 일본인의 배후자 VISA를 갖고 있는 한국인의 수

1992년 ... 21,855인 1997년 ... 20,738인

E. 영주자(재일한국인)의 배후자 VISA를 갖고 있는 한국인의 수

1992년 ... 6,391인 1997년 ... 4,522인

1998년판 [입관백서 참조]

사례보고2

이주노동자 문제

이 정 호 신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1980년대 후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이래로 한국 이주노동의 역사는 현재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목에 쇠사슬을 감고 제발 때리지 마세요. 우리도 인간입니다 라는 구호를 외치고 농성하던 95년 이후, 현재 한국사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어디쯤에 놓여 있는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관심 속에서 대두되고 있는 현시기에, 지난 10여년 간 이주노동자 사역을 통해 현장에서 몸소 체험한 이주노동자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이주노동자 체류현황 및 노동현실

현재 한국사회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2000년 8월 노동부 발표를 기준으로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가 약 17만2천 여명, 산업기술연수생 6만 여명, 현지법인 연수생 2만 여명 등으로 약 26만 8천 여명으로 추산되며, 최근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전 체	미등록노동자	전문기술직	연수취업자	연수비자	
				현지법인연수생	산업연수생
267,627명	172,501명	15,114명	950명	19,503명	59,559명

(노동부: 2000년 8월)

이주노동자들은 소위 3D 업종이라 불리는 도금 등의 화학공장, 목재, 가구업종, 프레스 사출 또는 조립 등의 금속업종, 섬유제조업, 인쇄업 등에 종사하며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건설현장과 식당, 여관 등의 서비스업종에 종사한다.

이들의 평균임금은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의 경우, 월 약 70-80만원 선이고, 산업연수생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과 잔업, 특근 수당을 모두 합쳐 월 50-60만원 선이나 수당의 10-1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월 24,000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중기협에 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령액은 30-40만원 선이다. 또한 보너스나 기타수당은 거의 받지 못하며, 퇴직금의 경우에 98년 말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받는 노동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며, 그나마 산업연수생은 퇴직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의 보장 수준은 근로기준법 5조에 신분, 출신, 인종 등등을 모두 떠나 실질적인 노무를 제공하면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는 출입국 관리법상 불법이라는 이유로 연수생은 기술을 배우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도 한정된 적용을 받고 있다.

2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 상황

1) 연수생 (산업기술연수생, 현지법인연수생)

연수생은 노동자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저임금과 일방적으로 노동을 강요받는 현대판 노예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연수생들은 산업안전교육과 언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로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산재의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들이 산업재해를 당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은폐, 축소하거나 산재보상금을 횡령하는 등 보상금은커녕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연수생들은 또한 연수업체의 이탈 방지라는 명목의 신분증 압류, 외출금지 및 인신구금, 언어폭력, 성폭력, 구타 등의 폭행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침해를 비일비재하게 당하고 있으며, 적립금이라는 이름의 의무저축 강요, 중기협이 연수생 관리를 위탁한 사후 관리업체에 의한 사기, 폭행, 횡령, 강압 등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사례 1) 안산 시화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인 에미는 본국으로 송금을 하고 싶으나, 회사에서 여권을 주지 않아 송금을 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 조차 처음 4개월 동안 주지 않았다. 밖에 나갈 때마다 아무런 신분증이 없어 불안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회사측에 외국인등록증을 달라고 하자 그때서야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주어 가지고 있다.

(사례 2) 1994년 9월부터 스리랑카 산업 연수생을 고용한 경북 구미공단 내 S섬유 회사는 연수생의 이탈을 방지한다며 연수생들의 외출을 통제할 뿐 아니라, 밤 11시부터 아침6시까지 는 방문을 밖에서 잠가 두었다. 1996년 8월 스리랑카 연수생들이 상담소를 찾아와 상담을 하기 전까지 전혀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사례 3) 99년 6월 안산 D산업사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연수생 푸르노마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처리하고 다른 동료들의 일을 도와 주고 있었다. 푸르노마는 작업에 있어 다른 동료들보다 좀 더 익숙하였기 때문에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었고, 자신보다 일이 더 늦게 끝나는 동료들의 일을 도와 함께 끝내고 쉬려고 했지만, 작업반장은 푸르노마에게 동료들을 도와주지

말고 다른 일을 하라며 또 다른 일거리를 맡겼다. 푸르노마가 작업반장에게 항의하자 작업반장은 몽둥이로 푸르노마의 팔을 세번 내리쳤다. 며칠 후 작업반장이 그 사건을 사장에게 보고했고, 사장은 작업반장의 말만 듣고 오히려 책으로 푸르노마의 목을 때렸다. 당시 푸르노마는 2년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측에서 1년간 비자 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푸르노마는 구타와 회사측의 부당함에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판단하여 사후관리업체에 출국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사례 4) 1999년 10월 5일 경북 구미공단 내에 소재한 S섬유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은 추석연휴기간동안 회사측에서는 중국인연수생 17명(전원 여성)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연수생들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연휴가 끝난 9월 27일 출근을 하지 않자 회사측에서는 위로금 5만원을 지급했다. 회사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후관리업체 M산업 대표인 정모씨가 현장으로 내려와 중국인 연수생들에게 위로금으로 받은 5만원은 임금에서 공제할 것이며, 연수생 중 2명을 당장 출국시킬 것이며, 항공료 역시 본인의 임금에서 공제하겠다고 고함을 치며 연수생들을 협박했다. 이날 야간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동료에게 열쇠를 건네주러 작업장에 들어온 연수생 1명을 왜 들어왔냐고 하면서 머리를 밀치고 주먹으로 귀와 머리를 폭행하였다. 폭행을 당한 연수생은 병원에서 진찰 한 결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상담을 받은 상담소에서 강한 문제제기가 있자, M산업 대표가 내려와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폭행을 당한 연수생에게 치료비등을 지불하였다. 중기협에 M 산업에 대한 사후관리업체 선정권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가벼운 경고 조치로 끝났다.

2)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이라는 신분적인 약점으로 인해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임금체불, 폭행, 사기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법무부의 일상적인 단속과 강제출국의 불안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1. 임금체불

사업주들은 불법체류자임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주노동자는 본인의 신분상의 약점으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하기를 기피한다. 또한 노동부에 만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미온적으로 처리되거나, 근로감독관이 영어 혹은 제3세계 언어를 잘 하지 못해 이주노동자가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로감독관 조차도 이주노동자에게 폭언 혹은 불친절로 인해 민원제기의 어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례 5) 남양주시에 위치한 Y 노트북 공장에서는 99년 겨울, 16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임금

을 받지 못한 채 공장이 문을 닫았다. 이 공장은 1년에 6개월 가량 가을철과 겨울철에만 일을 하는데, 6개월간 하루 12시간 이상의 작업을 시키고도 공장이 문을 닫는 달의 마지막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사업주가 자취를 감추는 형태로 몇 년간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일삼고 있다. 임금이 체불된 이주노동자들은 6개월 후 공장이 다시 문을 열면 찾아가 자신의 임금을 요구하지만, 사업주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핑계와 은갖 거짓말과 욕을 하고 이주노동자를 돌려보내는 수법을 쓰고 있다.

2-2. 산업재해

산업재해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 산재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만,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재 당사자 및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강제 출국 될 것이라는 위협으로 산재처리를 기피하고, 보상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

(사례 6) 남양주시에 위치한 D가구제조업체는 80여명 이상의 미등록노동자들이 근무하는 큰 규모의 공장이다. 이곳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인 마수드는 2000년 7월, 작업 중 왼손의 검지 손가락 세마디가 다 절단되고 나머지 중지와 약지는 절단 후 접합 수술을 한 재해를 당했다. 공장측에서는 산재보험 처리를 할 경우 본인은 물론 같이 일하는 방글라데시 친구들도 모두 출국된다고 위협을 하며, 산업재해를 은폐, 축소하려는 의도로 치료비와 200만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다.

2-3. 폭행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나마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 민원을 낼 수는 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폭행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억울하게 폭행을 당해도 경찰은 불법체류자라며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례 7) 99년 12월, 남양주시의 E가구제조업체는 작업 중 방글라데시 노동자와 한국노동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 이를 전해들은 사업주는 방글라데시 노동자를 불러 각목으로 때려, 귀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 동료가 이유없이 사업주에게 폭행을 당하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했고, 사업주는 또 다시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심한 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례 8) 2000년 4월, 방글라데시인 삼손은 저녁식사 후 그릇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취한 상태의 공장장으로부터 소주병과 각목으로 전치 2주의 폭행을 당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경찰은 출입국문제를 운운하며 신고하는 것을 포기시켰고, 이후에도 공장장

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례 9) 99년 10월, 나이지리아인 보나는 공장장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여덟바늘을 꿰매는 폭행을 당했다. 병원에서는 전치 3주 진단을 내리고, 정신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접수하면 출국된다고 하며 피해자를 출입국 관리소에 넘기기 전에 파출소에서 신변을 보호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축시켰다

2-4. 불법체류자 단속 및 강제출국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에게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과 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이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외출 및 일상적 생활에서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거주자에 대한 보호라는 UN의 사회권 규약에 입각하지 못하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라는 이주노동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낡은 법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사례 10) 인천 출입국관리소가 지난 99년 말 이주노동자 상담소 앞에서조차 10여명을 단속, 연행하자 단속에 대한 공포로 인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한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출국을 이틀 앞두고 상담소 내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례 11) 남양주시 성생공단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한 공장에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오면 누르는 벨을 장치하였다. 불시에 이루어지는 단속에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직원의 실수로 벨이 울렸고, 이에 놀란 필리핀 노동자들이 도망을 가다가 뒤엉키고, 담벼락에서 구르는 등의 사고로 두 명의 필리핀 노동자가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뼈를 심하게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건이 있었다.

앞에서 제시한 것들 이외에도 이주노동자들이 현실에서 접하고 있는 문제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 불법체류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겪는 혼인신고, 자녀교육의 어려움, 혼인신고가 되어도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비자 문제, 의료보험의 미적용으로 인한 의료복지 문제, 불법체류자 출국 시 범칙금 문제, 문화적인 차별, 배타적인 태도 등 이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근본적으로 세우지 않은 단순 미봉책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다.

3.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 방안

한국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이 시작된 이래 지난 10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주노동자들 자신과 관련 단체의 노력으로 일부 개선되었고 현재까지 싸우고 있지만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계속 음지에 있는 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 근무하며 한국 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모두가 인정하듯 이들은 우리사회 경제의 한 부분이고 이미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노동력은 인정하지만, 사람으로서 이주노동자는 인정하지 않는 이런 왜곡된 구조가 이주노동자들을 양지로 끌어내지 못하고 계속 음지에 머물게 하는 요인이다. 그리하여 국내외적으로 이주노동자 인권유린국가 라는 오명을 쓰고, 한국에 왔다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자, 언제까지 눈가리고 아웅하기 식의 정책을 지속시킬 것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산업연수취업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연수취업제는 불법체류자의 양산과 온갖 인권유린을 발생시키는 편법의 외국인력 정책이다. 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여 연수는 시키지 않고 열악한 조건의 단순노동을 시키면서 노동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현대판 노예 제도 의 철폐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두번째로 현재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의 양성화이다. 지난 10여년간 되어진 법무부의 단속은 이주노동자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되지 않고 음지에 있는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의 인권유린만을 지속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비공식적인 외국인력 유입을 중단하고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송출비리 없이 합법적으로 이주노동자가 들어와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의 마련과 함께, 현재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미등록노동자들에게 사면을 통해 합법적인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생색내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을 지녀야 하며 무엇보다도 현재 체류하고 있는 17만명의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들이 거부한 한국경제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며 노동하고 있는 이들을 배제한다면 이주노동자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려는 새로운 정책은 가장 큰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1960년대 독일에서는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 왔다 말이 있었다. 노동력에만 급급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던 정책의 교훈이며, 우리는 이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단지 노동력이 아닌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현재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노동력이 아닌 사람인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로부터 출발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分團討議

10月 31日(火) 15:15 - 17:00

1分團 - 主題講演에 關해

* 司會 : 許鍾鉉 神父

* 通譯 : 金景南 牧師

2分團 - 講演 (1)(2)에 關해

* 司會 : 岩本 和則(Iwamoto Kazunori) 牧師

* 通譯 : 李正子 先生

3分團 - 事例報告 I에 關해

* 司會 : 原田 光雄(Harata Mitsuo) 神父

* 通譯 : 金德煥 先生

4分團 - 事例報告 II에 關해

* 司會 : 崔依八 牧師

* 通譯 : 姜惠頂 先生

■ 分團討議

10月 31日(火) 15:15 - 17:00

공지

■ 報告 및 全體會議

10月 31日(火) 17:00 - 18:30

■ 司會：麻生 和子(Aso Kazuko) 先生, 金景南 牧師

■ 祈禱：安河垣 牧師